

깨달음이라는 ‘믿음’

| 월인 |

이번 호부터 월인 선생의 대승기신론 강의를 연재합니다. 이 강의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¹⁾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입니다. 그런데 제목에 믿을 신을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십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주²⁾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편집자주).



1) 깨어있기 워크숍의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212쪽 안내를 참고해주시십시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마명馬鳴이라는 인도인이 쓴 글로, 원효대사가 소疏¹⁾를 달면서 유명해진 글입니다.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로서 제목에 믿을 신信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대승大乘이란 마하야나mahayana라는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것으로 큰 수레를 의미하며, 많은 중생들을 실어서 저 피안彼岸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신起信은 일으킬 기起, 믿을 신信으로, 대승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승大乘은 큰 수레라는 은유적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나 생명과 의식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는 “대승의 본질적인 부분은 고요하며 적막하고 깊고도 그윽하다. 깊고도 또 깊으나 어찌 만상의 밖을 벗어나겠으며 고요하고 또 고요하나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 있다(夫大乘之爲體也蕭焉空寂湛爾沖玄玄之又玄之豈出萬像之表寂之又寂之猶在百家之談引之於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無에 두려하면 만물이 이를 타서 생성되니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억지로 대승이라고 이름하였다(一如用之而空獲之於無萬物乘之而生不知何以言之強號之謂大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승은 자기 자신만 깨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승은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생들, 모든 인류와 생명체까지 다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승의 의미는 그러한 수레의 의미이기 보다는 생명력의 본질, 의식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 소疏는 ‘막힌 것을 틔다.’는 뜻으로 원효의 〈기신론소〉는 대승기신론을 풀어 쓴 주석서라고 할 수 있다.

리고 그것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입니다. 제목이 무척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믿음信과 의식의 본질大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파한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깨우친 부처님의 믿음이 있고, 다음으로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향해 굳건하게 멈추지 않고 가는 불퇴전不退轉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지치면 쓰러지고 다시 돌아서고 다른 길로 가고 왔다갔다 하는 퇴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승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통찰을 이룬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기起, 즉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의 본뜻입니다.

얕이라는 것은 그 밑바닥에 가면 결국 믿음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얕이라는 것은 믿음의 일종이에요. 믿고 있는 것이지 결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라고 여기는 것도 일종의 의식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이란 드러났다는 것, 나타나있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든 보여진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깨우침은 진리를 통찰한 믿음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즉 주입된 생각을 믿어버리는 믿음이며, 또는 그 진리를 향해 끊임없는 탐구의 마음을 내는 불퇴전의 믿음이거나, 가끔 멈추며 뒤돌아가는 퇴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는 불퇴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반면 가다가 쉬고 가다가 멈추고 하는 퇴전의 믿음, 즉 후퇴하는 믿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이 신법은 바로 그 세 가지 믿음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명은 깨우침도 일종의 신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승小乘은 혼자만 깨닫고 말죠. “세상에 나와 네가 어디 있는가? 깨달은 ‘자’가 없는데 내가 어디 있으며 내가 ‘누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승의 이야기입니다.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않음도 없다는 관점입니다. 금강경 제9장 일상무상분一相無相分에 보면 석가모니와 수보리의 유명한 대화가 나오지요. “수보리야,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아라한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수보리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무명無明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승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대승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승은 두 가지의 문이 있는데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라는 것입니다. 심진여문은 말 그대로 마음이 곧 진여라는 뜻인데 마음의 참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도 없고 더욱이 있을 수도 없는,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지도 않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심생멸문은 마음이라는 것이 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며, 태어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대승은 마음의 본질로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소승은 주로 심진여문, 즉 본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대승은 부처의 마음인 본질과 생멸하는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 맨 처음에 나오는 중생심衆生心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번뇌煩惱가 보리菩提고 중생이 부처고 일상이 초월이고 절대가 상대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를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와 상대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고요 속에서 움직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고요를 향해 갑니다. 명상을 하거나 수련을 하는 사람은 고요함으로 가려합니다. 평화를 향해 가려고 하지요. 고요와 평화를 향해서만 가는 마음은 움직임과 소란스러움을 제외한 반쪽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움직임의 반대되는 한 ‘상태’일 뿐이지 진짜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마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마라즘鳩摩羅什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 많은 불경을 번역한 사람이고 깊은 통찰을 지녀서 아주 훌륭한 몇몇 제자를 두었는데, 그중 한 사람인 승조법사僧肇法師인데 그가 쓴 《조론肇論》에 보면 “고요함을 움직임 속에서 찾아야(必求靜於諸動) 진정한 본질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고요함을 움직임과 반대되는 정적 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소란스런 움직임의 한가운데에서 고요함을 찾을 때 진짜 고요인 것이며, 이때 비로소 고요와 움직임이 다르지 않으며 동動과 정靜이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하여 동과 정이 일어나는 본질을 꿰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 있는 논문입니다. 논論은 논문이죠. 논문은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옛 사람이 쓴 글이라기에는 매우 과학적이고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풀이한 놀라운 글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이 인연분因緣分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팔만대장경에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당신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뭘 덧붙일 것이 있어서 이 글을 썼느냐’고 누군가 마명에게 물어보니 답하기를, 이유가 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어떤 사람은 아주 짧고 압축된 글을 통해 쉽게 받아들이며 깊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많은 글을 통해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좋아

하는 등 사람의 기질과 근기와 깊이가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이 바로 인연분입니다.

두 번째는 입의분立義分인데, 인연분에서 이 글을 쓴 이유를 설명한 후에, 바른 뜻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이 논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철저하게 스스로 탐구하면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승기신론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석하고 풀이해놓은 것이 세 번째 장인 해석분解釋分입니다. 해석분에는 이 논의 상세하고 포괄적인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인데 이 논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수행신심분입니다. 신심을 일으켰으면, 즉 믿음의 마음을 일으켰으면 이제 수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장이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인데, 상근기上根機의 사람은 진리가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것을 위해 매진하지만, 중하근기中下根機라면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야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권수이익분입니다. 이 권수이익분에서 말하는 상근기는 수행 자체를 즐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탐구 자체를 즐기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늘 말하지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자기’를 탐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그만두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즐겁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마명이 마음을 내

서 권수이익분을 썼어요. 이것을 수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권수이익분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다섯 장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의 구조

인연분因緣分	아무 이유 없이 이 논을 지은 것이 아님을 보여줌.
입의분立義分	인연이 설명된 후 이제 이 논을 바른 뜻을 세우기 위한 장으로서 이 논을 핵심이 간략히 들어 있음.
해석분解釋分	이 논을 상세하고 포괄적인 설명이 들어 있음.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논을 이해했으면 실천을 해야 하므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음.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	상근기가 아니면 수행자체를 즐기기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를 생각해 움직이므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보여줌.

각의 단계

불각不覺—상사각相似覺—시각始覺—본각本覺

대승기신론을 보면 깨우침의 단계라는 것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불각不覺이 있습니다. 불각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각相似覺이 있습니다. 상사각은 깨달음 비슷한데 아직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시각始覺이 있습니다. 드디어 깨침의 맛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각本覺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각을 이룬 것이죠.

이렇게 불각, 상사각, 시각, 본각으로 각의 단계를 나누는데 불각은 기본적으로 ‘나와 대상’이 마음에서 ‘동시에 일어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명無明이라고 하지요. 밝지 못합니다. 왜 ‘나’라는 것이 생겨나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대상 때문에 생겨납니다. ‘대상’이 없는 곳에는 ‘나’가 없어요. 그 말은 ‘나’라는 것은 의식의장에서 일어나는 마음 속 현상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대상 또한 나로 인해 생겨나며, 이 둘은 무명無明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다보면 퇴적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 퇴적되는 부분이 일종의 대상이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생겨나는 것이 주체감으로서의 ‘나’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러한 불각을 넘어서면 이제 생주이멸生住異滅 중 멸상滅相이 사라집니다.

상사각은 각과 비슷합니다. 상사각에 이른 사람은 ‘나와 대상’을 비롯한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가변적인 것임’을 일단 아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주체감’을 ‘느끼기’²⁾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체감과 동일시되어서 주체감을 자기로 알고 있었는데, 상사각에 이른 사람은 주체감을 대상으로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체감도 일종의 ‘느낌’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본질인 생명의 힘이 주체감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동일시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떨어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사각인은 ‘나’라는 것이 생명의 힘이 동일시된, 에너지가 많이 뭉쳐있는 일종의 초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생각이 다르지(異) 않은 생명의 표현임을 알기에 상사각에 이르면 이상異相이 사라집니다³⁾.

2) 느낀다는 것은 느껴지는 대상이 진정한 자신이 아님을 알아챌다는 것입니다. 주체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주체감도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의 일종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여겨지는 주체감이 하나의 ‘느낌’일 뿐이라면 진정한 마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3) 이상異相이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생각은 다르며 그 다른 내용에 빠져 마음의 스토리를 진실로 믿어버리는’ 오류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생각의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하더라도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생각이란 참고할 정보일 뿐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본 것입니다.

시각始覺에 이른 사람은 모든 현상이 현상임을 보고, 더불어 현상이 아닌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지요. 현상을 통해서 현상이 아닌 것을 제대로 맛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와 대상’이 동시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입니다. 시각과 본각은 근본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수영에 비유하면 물에 뜰 줄 아는 사람과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사람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뜨는 걸 경험한 사람은 시각이고, 자유롭게 멀리 가서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본각인 것이죠. 자유롭게 물에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인 사람은 물에 떠 있다가 자기가 떠있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 다시 가끔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좀 오래 되면 뜨는 것이 자리를 잡죠. 그런데 뜨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했다는 측면에서는 본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이상 마음의 현상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게 됩니다. 시각은 ‘나와 대상’의 분열로 인해 생겨난 ‘내가 상주常住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환상을 넘어간 것으로 주상住相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본각本覺은 모든 ‘나’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아채지만, 그 알아채는 ‘나’도 일종의 현상이고 허상임을 분명히 보는 겁니다. 그 ‘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그 순간 또 다른 ‘동일시’가 있기 때문임을 동시에 알아채는 것입니다. 동일시되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채면서 동일시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본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각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시각과 본각은 본질에 있어서는 같으나 그 철저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각은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미묘한 업業, 카르마까지도 파악하고 영향 받지 않으므로 생상生

相을 넘어갔다 말합니다. 즉 생주이멸生住異滅하는 모든 현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상生相까지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현상의 펼쳐짐,

업業-전식轉識-현식現識-지식知識-상속식相續識

대승기신론에서 논해지는 다섯 가지 식識은 중요한 내용이며, 반복되어 나오므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업業이라는 것은 관성의 기반 즉 카르마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의 전생’이라기보다는 유전적, 에너지적인 인류 전체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거대 생명체로서 살아왔던 삶도 있을 것이고 바이러스로서 물속에서 산 삶도 있을 것이고 육지로 나와서 양서류, 조류, 포유류로서 지내온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생명체와 유기체의 삶을 살아온 모든 정보를 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에 이르기까지, 다세포에서 기관과 조직을 갖춘 지금의 인체와 에너지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경험의 흔적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업을 얘기할 때 개인적인 윤회전생輪廻轉生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보다는 생명체 전체의 윤회전생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업에서 조금 움직이기(動) 시작합니다. 무명無明의 힘으로 인해서 불각不覺이 움직이면 업식業識에서 점차 전식轉識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구를 전轉 자를 썼습니다.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움직일까요?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바로 업이며, 업의 움직임이 전식입니다. 이때 움직임에 의해 ‘능히 보는 마음(能見相)’이 생겨납니다. ‘주체와 대상’의 분열이 일어나 이제 뭔가를 감각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하지는 못해요. 아기가 갓 태어나면 감각은 할 수 있지만 의식은 하지 못하죠. 무언가를 의식하려면 마음 안에 경험

의 흔적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현식現識으로, 대상들 간의 경계가 ‘드러나는’ 단계입니다⁴⁾. 이때부터 구별하고 나누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깨어있기’의 용어로 말하면 감지感知입니다. 일체 만물의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분별하면서 그 이후부터 지성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결코 지혜, 지성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분별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지성과 지혜와 통찰의 기반이 분별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식知識입니다. 알 지知 자로 썼지만 지혜 지智 자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지혜(智)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식에 오면 단순히 경계 짓는 것에서 조금 더 분별이 심화되어 올바르게 올바르게 오름, 오염되고 오염되지 않음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법染法과 정법淨法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생겨나고 여기서부터 호불호好不好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호불호가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것을 즐기고 좋지 않은 것을 괴로워하는 고락苦樂이 생겨납니다. 이 고락에 연결되어 집착하는 마음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속식相續識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집착을 통해 만물 만사가 이어지지요. 만상萬相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느낌의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고락의 망념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을 상속식이라 합니다.

4) 처음에 주체인 ‘나’와 객체인 ‘대상’이 마음에 분열되어 나타나고, 그후에 수많은 ‘대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처음에는 ‘나’와 ‘나 아닌 것’만 분별했는데, 이 분별이 자리잡자 이제 ‘나 아닌 것’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현상계’가 의식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식現識이라 합니다.

생각의 세계를 살펴볼까요? 생각은 이름들 간의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즉, 하나의 이름은 결코 그 이름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결코 그 단어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이란 단어는 ‘수화기’와 ‘송화기’, ‘문자판’이라는 단어 등으로 나뉘지요 그리고 ‘케이스’와 ‘회로’ 등 수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다시 모두 분해해봅시다. ‘회로’를 한번 분해해볼까요? ‘기관’과 ‘납땀’, ‘금속선이 지나가는 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얹’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들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처럼 그중 한 단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게됩니다. 모든 것이 경계가 모호한 정의의 단어들로 되어있습니다. 즉 미지未知로 미지未知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얹’입니다. 그래서 얹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얹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을 뿐이지요. 그 믿음이 깨우침의 믿음이나 무지한 믿음이나 합리적인 믿음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大乘起信입니다. 대승이라는 본질에 관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깨우친 믿음이라는 것이죠⁵⁾. 그렇게 깨우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책이 대승기신론이에요. 논문의 이름에 Enlightenment, 깨우침,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을 信 자를 쓴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의미심장한 용어입니다. 마명이나 원효는 우리의 모든 얹이라는 것이 단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 즉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쳤다’고 느낀다면, 혹은 누군가 ‘내가 뭘 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信 속에 갇혀있다고 보면 됩니다. 표면적으로

5) 이렇게 무언가 깨우친 것마저 일종의 ‘믿음’임을 알아챌다면 거기 어떤 깨우침도 없음을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는 “깨우칠 ‘나’란 없어, 깨우침이란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 깊숙히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난 알고 있어. 난 경험했어. 난 깨우쳤어.’라는 생각이나 믿음이나 느낌이 있다면 신념 속에 갇혀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 모든 ‘과정’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식識을 일으키는 최초의 움직임이 바로 무명無明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 이유 없는 무명의 바람입니다. 모든 이유는 ‘의식’이라는 마음의 구조 속 열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말로하자면 밝지 않음, 어두움, 혼돈의 업이 움직여 이 모든 ‘분별의 세계’를 일으킨 것입니다. 업의 움직임은 ‘드러난’ 생명력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그 업에서 감각感覺⁶⁾이 생겨나면, 감각의 작용으로 인해 감지感知⁷⁾가 이루어지고, 감지가 분별하면서 거기에 이름과 생각이 붙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생명의 힘이 차고 흐르는 것, 이것이 생명의 네트워크, 상속식입니다. 앞으로 대승기신론에서 業, 전식轉識, 현식現識, 지식知識, 상속식相續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6) 감각感覺 : 깨어있기 용어. 있는 그대로를 느낌.

우리가 태어나 처음 감각기관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느껴지는 것으로, 자아의식과 존재감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통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흑에서 시작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수동적인 받아들임입니다.

7) 감지感知 : 깨어있기 용어. ‘익숙하다’, ‘안다’는 느낌.

감각된 것이 흔적을 남겨 내면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통해 외부의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 내적인 기준으로 인해 느껴지는 ‘익숙한’ 느낌이 감지이며 이것은 일종의 미세한 기억입니다. 이때부터 사물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면에 쌓인 것을 통해 ‘보는’ 능동적 대상이 됩니다. 즉,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쌓인 것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 1 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 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

월인越因 지음 | 히어나우시스템 | 12,000원

절대의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발로 딛고 서있는 지금 이곳에 이런 저런 일상의 생각이 활개치는 상대의식과 함께 있는 것이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그 번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멈추는 순간 바로 그곳이 절대세계인 것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채워진 드라마의 세계, '나'와 '대상'이 있고, 이것과 저것이 있는 상대 세계는, 바로 그 순간 절대세계 위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항상 지금 이곳에 이 둘은 함께 있는 것이다. 마치 파도와 물이 같이 있듯이...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

월인越因 지음 | 히어나우시스템 | 10,000원

감정은 자연스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원래 속성이지만 잘 쓰인 후 즉각 사라져버리지 않고 '관성'적으로 남아 우리를 괴롭힌다. 이것이 짐착과 저항이라 이름붙은 관성의 부작용이다. 감정의 밑바닥에 있는 나-너 구조를 명확히 보고 그 구조를 넘어 '모름의 신비'로 살아가길...



주역-심층의식으로서의 대항해

이원규 글, 한정우 그림 | 히어나우시스템 | 10,000원

2004년 3/4월부터 2009년 3/4월까지 <지금여기> 잡지에 연재되었던 명상만화로, 주역周易을 심층의식으로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법과 몇 가지 궤를 만화로 풀어놓은 책이다. 주역의 기본적인 해석을 위한 '주역의 기초'가 뒷부분에 실려있다.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

이원규 지음 | 히어나우시스템 | 8,000원

근원, 삶과 풍요, '나'를 사용하기, 새로운 사회, 관계 등의 주제에 대한 단상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지난 10여 년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주관심사가 무엇이고 어디에 삶의 에너지를 쏟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